

2017년도 인문자연탐사 보고서

'계룡산을 탐구하다'

입체적 인상주의 : 갑사로 가는 길

수필을 따라 걸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다

2017. 08. 21

정재영, 조민서, 이두호

지도교사 : 신현정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입체적 인상주의 : 갑사로 가는 길

- 수필을 따라 걸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다 -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1111 정재영 1112 조민서 2111 이두호

지도교사 신현정

1. 탐사의 필요성

가. 탐사 동기

계룡산은 천황봉을 중심으로 관음봉, 연천봉, 삼불봉 등 28개의 봉우리와 동학사계곡, 갑사계곡 등 7개소의 계곡으로 형성되어 있다. 또한 그 자태와 경관이 매우 뛰어나 삼국시대에는 백제를 대표하는 산으로 널리 중국까지 알려졌다. 신라통일 후에는 오악 중 서악으로, 조선시대에는 삼악 중 중악으로 봉해질 정도로 이미 역사에서 검증된 명산이다. 계룡산을 주제로 탐사 내용 탐색 과정에서 이상보 작가의 수필 ‘갑사로 가는 길’을 접하였고 수필을 읽으면서 사진으로도 접하지 않았음에도 구절들에서 갑사로 가는 길의 풍경의 아름다움을 떠오르는 시각적 이미지로 느낄 수 있었다. 이에 수필의 내용을 따라 실제 갑사로 가는 길을 걸으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자 본 탐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나. 탐사 의의

본 탐사는 궁극적으로 이상보 작가의 수필 ‘갑사로 가는 길’을 실제로 따라 걸으면서 이상보 작가가 묘사한 갑사로 가는 길의 전경을 개성 있는 입체적 인상주의 작품으로 표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기존의 노부히로 나가니시(Nobuhiro Nakanishi)와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동일 장소의 이미지의 나열인 입체적 인상주의 작품들과 달리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이동하면서 볼 수 있는 공간적으로 분리된 장소들의 이미지의 나열로 새로운 입체적 인상주의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위 작품은 대부분의 비주얼 아트 작품들과 달리 시각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이상보 작가의 수필 ‘갑사로 가는 길’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시각적 이미지의 실제적 구현으로 더 큰 의미를 가진다. 부가적으로 본 탐구의 결과물은 계룡산의 갑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현대소설 ‘갑사로 가는 길’, 유화작품 ‘갑사 가는 길’의 홍보 효과까지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탐사 전 사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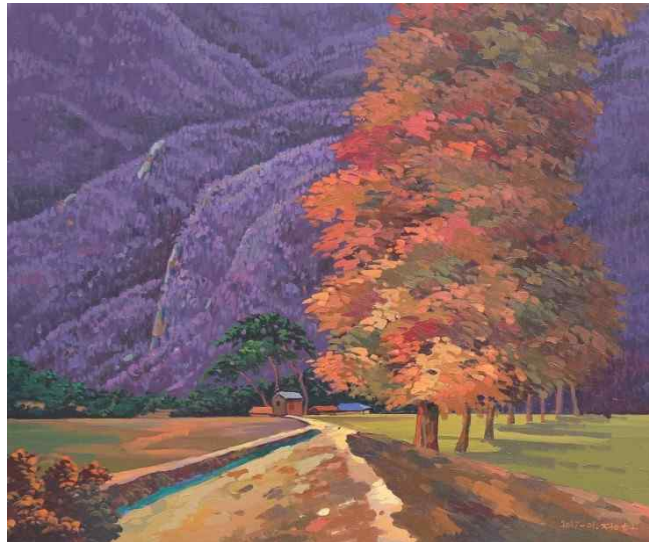
가. 이상보 작가의 수필 ‘갑사로 가는 길’

이상보 작가는 수필가로 1943년 광주사범(光州師範)을 거쳐 1950년 세종 중등국어교사 양성소(世宗中等國語教師養成所) 졸업하고 1962년 《박노계연구(朴蘆溪研究)》로 문단에 나왔다. 수필집으로 《사색(思索)의 편린(片鱗)》 《초원(草原)의 백조(白鳥)》가 있다. 수필 ‘갑사로 가는 길’은 고전문학 연구자이면서 수필가인 이상보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남녀와

금수가 경계를 초월해 만들어낸 신묘한 전설을 바탕으로 갑사의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본 탐사는 주제 선정 과정에서 위 수필을 접하게 되었고 이상보 작가의 풍경 묘사에 큰 영감을 받았다. 이에 본 탐사는 수필에서 묘사되고 있는 풍경들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보고 느끼면서 수필을 따라 갑사로 가는 길을 걸어보고자 한다.

나. 김정호 작가의 유화 ‘갑사 가는 길’

김정호 작가는 녹음이 짙어지는 계룡산 골짜기에, 온갖 생명체가 삶을 즐기고 있는 신록의 계절에 산을 소재로 작품 활동을 해온 원로 작가이다. 작가는 한반도 서쪽 충청남북도에 펼쳐진 온화하면서도 기품이 있는 계룡산을 바라보며 평생을 교육자와 화가로 활동한 충남의 대표적인 작가이다. 김정호 작가가 그려낸 ‘산’은 작가가 경험하며 살아온 포용력 있는 친근한 산으로 늘 오고가며 바라본 산, 작가의 시선과 마음으로 들어와 위로와 휴식을 안겨주는 산을 그려내고 있다. 그는 ‘상신리에서,’ ‘갑사 가는 길,’ ‘동월계곡’등과 같은 작품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과 관계된 산을 작품 속에서 노래한다. 본 탐구는 그의 작품들 중에서 사람들이 오고가며 만들어낸 오솔길, 산 밑에 자리한 작은 마을, 다양한 색채를 품고 있는 나무들을 담은 ‘갑사 가는 길’이 위에서 언급한 이상보 작가의 수필 말미의 공간적 배경인 ‘갑사로 내려가는 길’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 김정호, 갑사 가는 길, 65.1x53 cm, 캔버스에 유채 >

다. 비주얼 아티스트, 노부히로 나가니시(Nakanishi Nobuhiro)

노부히로 나가니시(Nobuhiro Nakanishi)는 일본의 대표적인 비주얼 아티스트로 물체에 대한 인식 자체를 시각적으로 풀어내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다. 본 탐구의 작품 제작에 그의 작품들 중 가장 대표적인 레이어 드로잉 시리즈가 큰 영감을 주었다. 레이어 드로잉 시리즈는 해가 뜨거나 아이스크림이 녹는 것과 같이 시간에 따라 시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일상적인 사건들을 정기적인 시간 간격으로 촬영하여 투명 필름에 인쇄해 순차적으로 나열한 작품들이다. 본 탐사에서는 노부히로 나가니시(Nobuhiro Nakanishi)의 기법이 ‘갑사 가는 길’의 이미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 노부히로 나가시 작품 전시 모습 >

3. 탐사 과정

가. 수필 ‘갑사로 가는 길’을 읽으면서 내용 구상

이상보 작가의 수필인 ‘갑사로 가는 길’을 읽으면서 내용을 이해하고 남매탑에 얹힌 전설에 대해 알게 되었다. ‘갑사로 가는 길’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동학사에 오른 네 등산객이 갑사로 이동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이다. 갑사에 이르자 남매탑이 보였고, 남매탑에 관한 신묘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다. 신라 선덕여왕 원년에 당승 상원대사가 이곳에서 움막을 치고 수도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큰 범 한 마리가 움집 앞에 나타나 아가를 벌리기에 상원대사는 죽기를 각오하고 범 아가리에 걸린 인골을 뽑아 주었다. 며칠 후 그 범이 처녀 하나를 물어다 놓고 가버렸다. 그 처녀는 경상도 김화공의 딸이었고, 대사는 처녀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 과정에서 상원 대사의 인격에 반한 처녀는 부부의 인연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그러나 상원대사의 불심은 변하지 않았고, 결국 둘은 의남매의 연을 맺게 된다. 그들은 서로 불도에 힘쓰다 서방 정토로 떠난다. 우리는 이러한 수필 ‘갑사로 가는 길’의 내용을 사진으로써 재현해보고자 한다.

나. 계룡산 갑사를 직접 방문하여 사진 촬영

다음과 같은 경로로 탐사를 진행하였다.



버스 도착 장소인 갑사 주차장에서 갑사로 이동한 후 용문 폭포로 이동하였다.

다. 작품 제작

1) 사진 선정

1일차에 촬영한 사진들 중 작품에 사용할 사진들을 선정한다. 김정호 작가의 그림 '갑사 가는 길'을 중심으로 갑사로 가는 길에서 볼 수 있는 풍경들을 선정한다.

2) 사진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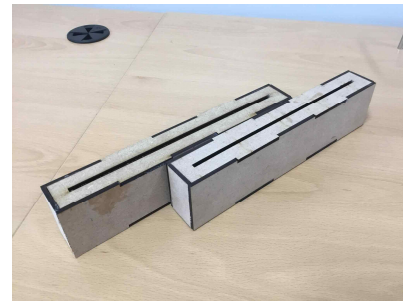
선정한 사진을 레이저 프린터를 이용하여 OHP필름에 인쇄한다. 그 후 약 10여분 정도 건조시킨 뒤에 아크릴 판에 OHP필름의 접착면을 이용하여 붙인다.

3) 받침대 제작

AUTO CAD를 이용하여 받침대 도면을 그린다. 그리고 레이저 커터를 통해 MDF를 잘라 사진 받침대를 제작한다.



< 사진 선정 >



< 제작한 받침대 >

4. 탐구 결과 - 작품 모습



< 정면 >



< 후면 >



< 좌측 >



< 우측 >

5. 결론

본 탐사는 탐사의 결론이자 결과물으로써 입체적 인상주의 작품 ‘갑사로 가는 길’을 제작하였다. 위 작품은 이상보 작가의 수필 ‘갑사로 가는 길’을 읽고 풍경에 대한 묘사에서 영감을 받아 실제로 갑사로 가는 길을 따라 걸으면서 이상보 작가가 묘사한 풍경을 실제로 감상하고 그 시각적 이미지들을 작품에서 담아내고자한 작품이다. 형태적으로 위 작품은 노부히로 나가니시(Nobuhiro Nakanishi)의 레이어 드로잉 시리즈에서 영감을 받아 아크릴판에 직접 촬영한 사진을 OHP 필름을 이용하여 붙이고 배열하였다. 하지만 위 작품은 기존의 노부히로 나가니시와 달리 시간의 흐름이 아닌 공간의 이동에 따라 사진들을 배열하면서 입체적 인상주의의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하였다. 본 작품은 시각적 아름다움과 수필의 시각적 이미지, 그리고 김정호 작가의 ‘갑사 가는 길’ 유화 작품까지 함께 표현하여 홍보 효과까지 함께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활동 후기

- ▶ 정재영: 인문 자연 탐사 장소로 계룡산에 위치한 갑사를 가게 되었는데, 비가 정말 많이 와서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폭우로 인해 사진을 찍기 힘들었고, 산행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있는 소설 속 장소를 직접 가보고 전설을 알아보는 것이 새로운 경험이었고, 남매탐에 가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 ▶ 조민서: 이번 인문자연탐사를 통해 계룡산의 아름다운 절경을 볼 수 있게 되어 너무 행복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풍경을 이용하여 작품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즐거웠고 기회를 마련해준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에게도 감사했다. 하지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계룡산 곳곳을 가보지 못한 점이 너무 아쉬웠다. 다음번에 기회가 생긴다면 다른 자연경관을 마음껏 느끼며 좋은 영감을 받아 또다른 작품을 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 ▶ 이두호: 만약 작품을 완성해나가는 과정에서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의미보다 아름다움만을 추구하였다면 이와 같은 결과물이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냥 풍경이 아닌 갑사로 가는 길이라는 수필의 구현, 김정호 작가의 친숙한 산 전경, 하나하나 각각의 의미가 있는 배치들 작품을 완성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름의 이유와 의미가 있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작품은 처음 봤을 때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작품이 아니라 보고 또 봐도, 보면 볼수록 더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이 바로 진정으로 아름다운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시간이었다.

7. 참고 문헌

- ▶ 한국현대문학대사전 > 한국문학 > 이상보[李相寶]
- ▶ 임립미술관 2017 특별기획초대 "산의 두 얼굴전 2 - 김정호"
- ▶ Twisted Sifter, Layered Landscapes by Nobuhiro Nakanishi (July 19, 2017)